

제63차 OECD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전체회의 및 워크숍

I. 회의개요

제63차 OECD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전체회의 및 워크숍이 2012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OECD 본부에서 개최됨.

II. 주요내용

- 금번 워크숍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통계작업반 사무국과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산선언 이행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조효과작업반(WP-EFF)에서 동 문서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구속성 원조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통계작업반에서는 구속성/비구속성 구분이 무의미한 사업유형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이에 한국은 ‘개발인식증진’을 검토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 개발관련 재원(Development Related Finance)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신용보고 체계 개선 및 개발관련 재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 수행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번 회의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고 ‘Other Official Flows(OOF)’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III. 관찰 및 평가/건의

-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산선언 관련문서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를 표하였고 일부국가에 대해 사무국은 동의 여부를 조속히 서면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적의 조치가 요구됨.
 - 수정 사항 없이 동 문서가 WP-EFF를 통과하게 될 경우, IATI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IATI 기준의 모든 항목들을 2015년까지 보고해야 하므로 국내적인 시스템 보완 등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
- 한국이 제안한 ‘개발인식증진’ 비용이 ‘비구속이 불가능한 원조(not untiable aid)’로 분류되면 비구속성 비율의 증가가 기대되는 바, 차기회의에서 해당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Non-ODA 통계 개선을 통해 개발관련 재원의 적절한 실적 집계 및 평가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post-MDG 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관련 영역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Annex2), 기타 다자지구 채널코드 수정 사항을 국내 ODA 통계보고시스템에 반영하여 2011년 확정치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이 요구됨.